

현민 여러분께

에히메현 지사 나카무라 도키히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의료체계 붕괴 경계 선언' 종료 및 감염 경계기 ~특별경계기간~ 유지

에히메현에서는 제 8 차 유행에 의한 감염 급증과 함께 연말연시의 의료체계 붕괴를 우려하여 작년 12월 15일에 '의료체계 붕괴 경계 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여러분께서 선언 내용을 받아들여 주의 깊게 행동해주신 덕분에, 확진자 수는 정점 시기와 비교하여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발열 외래진료도 예전과 같은 혼잡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병상 사용률은 30% 이하로 감소하였으며, 그 외 응급 출동 건수도 감소 경향을 보이는 등, 외래·입원·응급 이송 등 상황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판단하여, 오늘 **'의료체계 붕괴 경계 선언'을 종료**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선언은 어린아이와 고령자의 의료 접근성을 우선하므로, 중증화 위험도가 낮고 증상이 가벼운 분은 휴일이나 야간 진료를 삼가도록 강력히 요청드렸습지만, 선언 종료에 따라 이 요청도 종료됩니다.

한편, 현재 많은 의료 기관이나 고령자 시설에서 중증화 위험이 높은 고령자 및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감염되어 다수 요양을 하는 등, 지역 의료부담은 계속되고 있는 점에서 **경계 레벨은 '특별경계기간'을 유지**합니다.

현민 여러분께서는 **장기적인 의료와 응급 진료로 의료현장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현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선언 종료 후에도 **결코 방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본적인 감염 대책에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사항

①기본적인 감염 대책의 일상화

- 정기적인 환기와 손 자주 씻기 등
- 항원 검사 키트(국가가 승인한 것), 시판 약(해열진통제 등), 3일분의 물과 음식 등을 사전 준비
- 계절성 인플루엔자(독감) 주의

②연령·증상에 따른 진료 받기

- 의료기관 진료나 구급차 이용은 4개 학회(전문가)가 제시한 기준을 참고로
- 중증화 위험도가 낮고 증상이 가벼운 분은, 자가 검사하여 양성인 경우 '에히메현 양성자 등록 센터'에 등록

③오미크론 변이 대응 백신 조기 접종

➢ 증상 발병과 중증화를 예방하기 위해, 연령을 불문하고 가능한 분은 조기 접종할 것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5월 8일부터 5류 감염증(일본 정부에서 전염력과 감염 증상 정도에 따라, 1류(가장 위험)에서 5류로 분류. 현재, 코로나 19는 2류)으로 이행하려는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5류로 하향되더라도 백신 전염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앞서, 정부가 마스크 착용에 관해 3월 13일부터 원칙적으로 '실내, 실외를 불문하고 개인 판단에 맡긴다'는 방침을 결정했습니다만, **이것은 결코 감염 대책을 안 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감염 재확산을 막고, 지역 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현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상황에 맞게 기본적인 감염 대책을 지키고, 연령과 증상에 따른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